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WELCOME
WORSHIP
DISCIPLESHIP

[Matthew 11:28-30]

주일예배 및 모임안내

주일1부예배	본당	9:00 am
주일2부예배	본당 & 라이브	11:00 am
Youth	아가페홀	11:00 am
유초등부	아가페홀	11:00 am
영유치부	본당 지하	11:00 am
화요소망학교	본당 지하	11:00 am
수요일예배	본당	7:00 pm
AWANA (수)	아가페홀	7:00 pm
새벽예배 (화-토)	본당	6:00 am
청년부예배 (토)	아가페홀	12:30 pm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김성직 목사	은퇴장로	김대희 배상진 임병갑 장기림 백근조
방송/청년	오정훈 목사		이덕홍 이창진 윤순화 오귀록
소망학교	이신웅 전도사	찬양인도	황규식 공석우
중고등부	문강한 전도사	지휘자/서무	박은실
유초등부	청빙중	반주자	노윤실사모 김은화 이화니
영유치부	김성은 사모	번역/통역	김예람 이화니 송명신
시무장로	백형수 윤순기	방송	조준한 Daniel Sewell 조희수

열방을 섬기는 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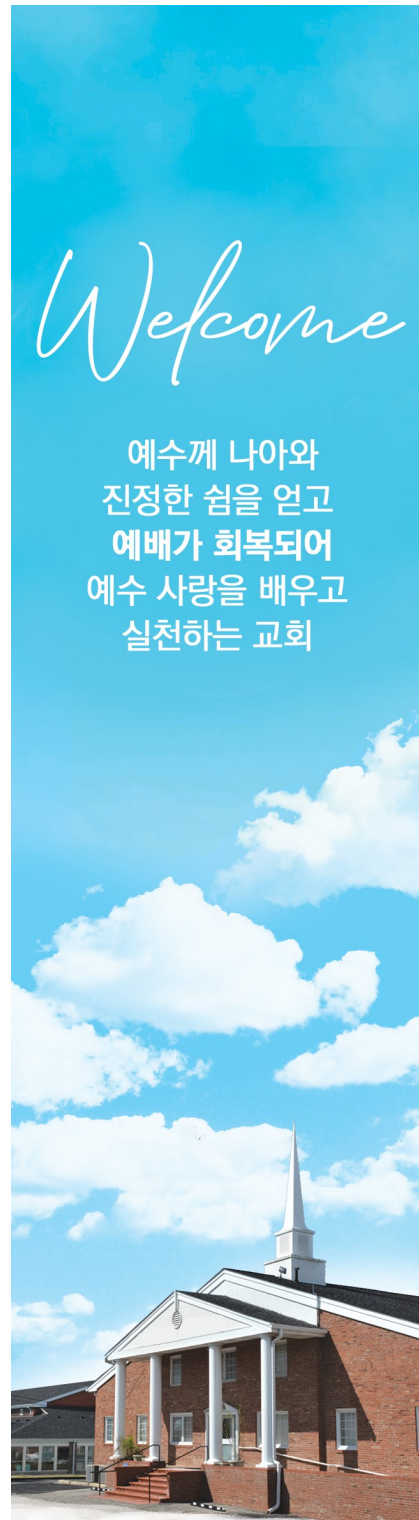
태 국	배종원	요 르 단	설총호/전경원
중 국	이주애	도미니카	이광호
케냐	이영규	아파치인디안	강원용
칠레	황신재	키르키즈스탄	바나바/다비다
모로코	김영목		



세인트루이스 한인소망교회

Korean Hope Presbyterian Church of St. Louis

2210 Mckelvey Rd., Maryland Heights, MO 63043
Church (314) 275-2661 Email HopeSTL@gmail.com
www.HopeSTL.org Agape Hall (314)786-5018



Welcome

예수께 나아와
진정한 심을 얻고
예배가 회복되어
예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교회

10.8.2023

고린도의 소명자들

1부 9:00 AM 2부 11:00 AM

LIVE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경배와 찬양	찬양팀 (15분 전부터 시작됩니다)
* 기원	인도자 / 김성직 목사
신앙고백	사도신경
성서교독	교독문 78번 요한복음 John 14장
참회의 기도	잠언 Proverbs 28:13
찬송	찬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다같이
기도	윤순기 장로
광고	인도자 / 김성직 목사
봉헌, 봉헌송	찬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다같이
봉헌기도	인도자 / 김성직 목사
성경봉독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1:1-17, NT p 263
말씀	고린도의 소명자들 / 김성직 목사
Sermon	The Called in the Corinthians
*결단의 찬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 축도	김성직 목사

* 일어서서 Please stand up

목회자컬럼 // 김성직 목사

역할이 거의 절대적이다. 축복된 여론을 확대 재생산하든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여론을 확대 재생산하든지 권사는 입술을 제어하는 지혜자가 돼야 한다. 사도 바울은 어떤 여성들이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름 뿐 아니라 망령된 평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는” 사실에 주목하고 마음 아파했다. 이러한 여교우들을 누가 바로 잡을 것인가? 삶으로 인정받는 여성 지도자인 권사의 몫이 아니고 누구의 몫이겠는가! 말 많은 권사가 될 것인가? 덕이 많은 권사가 될 것인가? 선택의 몫 역시 권사들에게 달려 있다.

“목회의 후원자로 서라”

목회자가 힘들어 할 때 기도의 막강한 후원 부대는 영적인 천군만마를 얻음과 다름이 없다. 구약이나 신약에서 영적 지도자의 든든한 후원자들의 이름 중에 여성도의 이름이 빠지지 않는다. 엘리야의 후원자 사르밧 과부, 엘리사의 후견인 수벰 여인, 사도 바울의 사역에 힘을 돋운 여러 여성도들의 이름이 서신서 뒷부분을 인상 깊게 채우고 있다. 모성애적 마음으로 목회자의 동반자로서 묵묵히 사역을 감당하는 권사의 모습은 목회자는 물론이고 교우들에게도 큰 감동을 준다. 주님께서 여성 지도자의 섬세하고 끈질긴 성품을 사용하셔서 흔들리는 목회자를 세우시고, 낙심한 목회자에게 용기를 불러일으키신다. 권사들의 다른 별명이 ‘기도의 어머니’란 사실이 목회자의 동역자란 사실을 힘있게 증거하고 있다. 한국 교회의 권사 제도는 목회자와 교회에 힘을 실어주는 하나님의 사려 깊은 선물임에 분명하다.

“말씀의 분별력을 소유하라”

이단 사상이 난무하는 한국 교회의 형편이다. 여교우들을 무차별 공격하는 이단들의 시도를 최일선에서 분별하고 막아야 하는 위치가 권사들이다. 어떤 일이든지 목회자에게까지 보고돼 상황을 타개하기까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제법 시간이 걸린다. 이때 분별력 있는 권사가 초동 진압 작전의 선봉에 서서 자신의 몫을 잘 감당하면 교회는 이단 사상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게 된다. 꼭 이단의 문제뿐 아니라, 교우들의 삶에는 복병처럼 숨어 있는 일들이 많다. 일이 터진 후 치료는 예방 사역보다 몇 배의 인적 물적 요소가 투자돼야 한다. 시대를 앞서 읽어냈던 에스더처럼 통찰력을 소유한 권사들은 교회의 영적 지킴이다. 얼마나 많은 위태로운 일들이 권사들의 분별력에 의해서 사전에 정리되었는지 모른다. 특수 부대 군인들이 탐지기로 묻혀 있는 지뢰를 찾아내듯, 권사들의 영적 레이더가 교회의 영적 풍향을 주도한다.

기독교 역사 2000년의 지혜를 담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가정 중심, 목회자 중심’의 검증된 생활 원리는 건강한 교회에 직·간접으로 축복이 되었다. 사람과 사물을 대할 때 따뜻한 마음과 예리한 분별력으로 자신의 성숙함을 도모하고, 교회에 축복을 가져다 주는 권사라는 직분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존중받아 마땅하다. (오정호목사, 대전 새로남교회)

임직식을 준비합니다. (2)

계속해서 직분자들의 직무에 대해 오래 전 제가 목회자컬럼에 썼던 내용들을 다시 나눕니다. 이 내용으로 교육도 함께 진행될 건데요, 다른 성도님들도 이렇게 직분자들을 세워주시고 옆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Job Description – 권사”

“권사(권사, exhorter)”라는 직분은 사실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직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서는 정말 빼놓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직분이 바로 이 “권사”라는 직분입니다. 원래는 감리교에서 시작된 직분인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특별히 여신도들 중에서 “권사”를 선출합니다.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권사의 직무는 딱 한 마디로, “당회의 지도대로 교인을 심방 하되 병자와 곤난을 당하는 자와 연약한 교인을 돌아본다”입니다. “담임목사”가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맨선봉에 서 있다면, 그리고 “장로”가 교인들과 “담임목사” 사이를 연결해 주는 다리라면, “권사”는 교인들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그들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교인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권사”라는 직분이기에, 누구보다도 교인들의 사정을 잘 아는 직분입니다. 이렇게 귀한 “권사”라는 직분에 대해 어느 목

사님의 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 일부를 발췌해서 적어봅니다. 이런 “권사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칭찬 받는 시어머니가 되자”

지도자의 가정은 그 사람의 참모습을 말해 준다. 부분적이겠지만 ‘권사 시어머니 때문에 교회에 다니기 싫다’는 뼈아픈 사연이 심심찮게

들려오는 이유는 가정 사역의 적신히 때문이다. 가정에서 지도력은 하루 아침에 행사된 것이 아니기에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대상을 이해하고 열린 마음의 대화가 기본이다. ‘민습니다’ 스타일이 효험을 발휘할 때도 적지 않지만, 오히려 반작용을 불러오는 경우도 많다. 권사가 주님과 깊은 대화를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 맛보듯, 세대가 다른 사람들을 기도하듯 품는다면 수평적인 교제의 원만함을 이룰 수 있다. 칭찬 받는 시어머니 권사는 지도력의 많은 부분을 보여줄 것이 분명하다.

“덕이 있는 여론을 형성하라”

권사라는 직분 자체가 여론 형성의 중심에 서게 된다. 교회는 말이 많은 곳이다. 말을 말로 다스리는 역할의 선봉에 권사가 서 있다. 실상 교회의 모든 여론 형성의 진원지는 권사의 ‘입’일 때가 많다. 여론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권사의

성서교독

교독문 78번 요한복음 John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 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같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고린도의 소명자들 (고전 1:1-17)

< 본문 속으로 >

1.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되는 이들의 모임입니까? (2절)

2.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까? (2절)

3. 누가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십니까? (8절)

4. 오직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온 바울의 궁극적인 좌우명은 무엇입니까? (17절)

SATURDAY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1. “의”와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2. 담임목사님에게 날마다 새 힘과 권능을 주셔서, 귀한 영의 양식을 말씀으로 능력있게 전하고 주님 사랑으로 성도들을 품게 하소서.
3. 모든 리더쉽들에게 항상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 반석 위에 모두 한 마음으로 동역하게 하시고, 사역의 현장마다 풍성한 섬김의 열매가 있게 하소서.

2. 거짓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으며, 오직 예수님의 선하심을 내 안에서 점점 회복해 나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3. 평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자로 주께 납작 엎드러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SUNDAY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1. 세상 풍조에서 벗어나,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가득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

이창진 장로님: 무릎 수술 후 회복 중이십니다.

안성실 권사님: 허리 수술 후 회복 중이십니다.

배상진 장로님: 노환으로 힘든 중에 계십니다.

송명신 자매님: 계속 건강회복중이십니다.

장길자 권사님: 협착증으로 허리 수술 후 회복 중이십니다.

MONDAY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게 하소서

- 오직 성경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주께서 옳다 하시는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소서.
-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대로 행하는 열매가 점점 맺히게 하소서.
-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선”한 것에는 지혜롭고, 반면 “악”한 것에는 미련하게 하소서.

3. 세상과 아무런 마찰이 없이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빛의 용사가 되게 하소서.

THURSDAY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소서

- 1.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그리고 이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하소서.
- 2. ‘코로나19’을 지나가며, 각 나라와 민족들이 더욱 더 하나님 앞에 무릎꿇고 회개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 3. 각 나라와 민족 가운데 흠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어디서든 주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생활 속으로>

1. 소명자는 ‘거룩함’을 명심하면서, ‘이미’의 은혜를 알고, ‘아직’의 점검을 하는, 참된 삶의 예배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면서, “이미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에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있는지, 또한 “아직 이 길을 가고 있다”라는 사실에, 스스로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아직’의 점검을 하고 있는지, 혹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세요.

TUESDAY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 1. 부모인 내가 먼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며,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게 하소서.
- 2. 하나님만이 중심 되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가정되게 하소서.
- 3. 성경적 가정의 모범을 이루어 서로 사랑하며 공경하며 순응하게 하소서.

2. 소명자는 ‘하나됨’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를 찢고 나누는 분쟁이 결코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행여 우리 안에는 서로 분쟁하고 내 성향 따라, 내 기호 따라 나누어지는 일이,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우리 예수님의 옷을 갈기갈기 찢어서 나누었던 로마 병정들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혹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로 인해 가리워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십자가 앞으로 늘 다시 돌아오는지, 점검해 보세요.

FRIDAY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소서

- 1.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소서.
- 2.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아 거룩한 계보를 이어서 교회와 민족과 맡겨진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 3. 흔들리는 세상 문화 속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당당하게 믿음의 뜻을 정하게 하소서.

WEDNESDAY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 1. 주께서 맡겨주신 자리이기에, 주께서 부여하시는 은혜와 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 2. 성경 말씀에 기초한 선택과 집중으로 학업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소서.

예배를 섬기는 이들

10/8		10/15	
대표 기도	윤순기 장로	대표 기도	윤순화 장로
교회 안내	최길자 권사	교회 안내	홍달표 집사
번역/통역	김예람 자매, 송명신 자매	번역/통역	이화니 자매, 송명신 자매
애찬 담당	케냐구역	애찬 담당	도미니카구역
교회 청소	키르키즈스탄 (10월)	교회 청소	키르키즈스탄 (10월)

향기로운 예물 10/1/2023

주일	\$1,216	건축	\$120	주일학교/유스	\$25
십일조	\$5,882.41	첫열매	\$40	방송문서	\$100
감사	\$530			청년부 보조금	\$100
선교	\$20			선교 바자회 보조금	\$100
구역선교	\$400			헌금총액	\$8,533.41

헌금 외 수입금

입금총액 \$8,533.41

교회헌금 KHPC 2210 McKelvey Rd., Maryland Heights, MO 63043
 온라인 HopeSTL.org/online-donation

1. 각 부장모임

오늘 식사교제 후 1시에 회의실에서 잠깐 모입니다.

2. 각 부서모임

다음 주일(10/15) 식사교제 후 편하게 모여주세요. (예산책정)

3. 선교부 바자회

선교부 바자회(Garage Sale) 도네이션 받습니다.
 바자회 일정은 10/13(금)~14일(토) 입니다. 픽업서비스 문의
 는 이화니 자매님께 해 주세요. (417-619-4227)

4. 찬양대 연습

오늘 식사후 본당에서 찬양대 연습이 있습니다.

교회행사

10월 8일 (주)

각 부장모임

10월 15일 (주)

각 부서모임

10월 22일 (주)

구역자모임

10월 29일 (주)

성찬식

공동의회

(안수집사/권사)

교우동정

새로 등록된 교인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구역 소망학교 (이신웅 전도사, 남진우 권사) 위해서

기도가정 조준한 (최미진 집사) 집사님 가정 위해서 - 한나